

# 張保皋

King of the Ocean  
ChangPoGo

## 해상왕 장보고

## 장보고 기념관

### 장보고 기념관은

1200여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해양개척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08년 2월 29일 개관하였습니다.

위치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455
건립주체	완도군청
면적	대지 14,472㎡
	건축면적 1,739㎡
	전시면적 730㎡
규모 및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2층
	1층 로비, 영상실, 기획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휴게실
	2층 상설전시실 (1전시실, 바닷길, 2전시실)
개관	2008년 2월 29일(금)



### 장보고 기념관 관람시간 및 요금

- 하절기 (3월 ~ 10월) > 09:00부터 ~ 18:00까지  
입장은 17:30분까지입니다.
- 동절기 (11월 ~ 2월) > 09:00부터 ~ 17:00까지  
입장은 16:30분까지입니다.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연령	기준	관람요금	
		개인	단체 (유료관람객 20인 이상)
어른 (만 19세 ~ 만 64세)	1인 1회	1,000원	700원
청소년 및 군인 (만 13세 ~ 만 18세)	"	700원	500원
어린이 (만 7세 ~ 만 12세)	"	500원	300원

## A 중앙홀

### 장보고 무역선

장보고무역선은 경북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선과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에서 출토된 11세기 고려배다. 일본과 중국의 배와 문헌을 통해 신라시대 배를 추정하였고, 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이다.

- 현재 선체 길이 : 약 7.9m
- 현재 돛대 높이 : 약 7.0m
- 재료 : 삼나무(선박 목재로는 최고)
- 설계 : 이창익(울산과학대 교수)
- 제작 : 마광남(청해진선박연구소장)
- 기증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축척 : 1/4



### '해상왕장보고' 목조벽화

1200여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대사의 무역활동을 실감나게 형상화함으로써, 바다를 무대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정신과 응혼한 기상을 전하고 있다. 장도 청해진 유적에서 바라다 본 상항봉 일대의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 작품명 : 해상왕 장보고 (海上王 張保皋)
- 작품규격 : 가로 8,000 × 세로 2,200 × 두께 200mm
- 작품재질 : 피나무(楸木, 화면부), 자작나무(紅花栂, 테두리부)
- 제작자 : 육광정(陸光正) 중국공예미술대사(中國工藝美術大師)  
남(男) 1945년 3월 중국 절강성 동양시 출생.  
1988년 '중국공예미술대사' 칭호를 수여받았다.
- 기증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B 기획전시실

매년 새로운 기획 전시



## 1F



- A 중앙홀 Center Hall
- B 기획전시실 Planning Exhibition Hall
- C 영상실 Video Room
- D 휴게실 Rest Area



## 2F



- E 제1전시실 Exhibition Hall No.1
- F 제2전시실 Exhibition Hall No.2

# ChangPoGo Memorial Hall

## 상설 전시실(2층)

기념관은 완도가 고향인 장보고대사의 실체를 한·중·일 삼국의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기록을 통해 증명하고, 해양개척 정신을 재조명하는 공간이다. 상설전시는 뿌리 / 생성 / 제국 / 항해 등 4개의 Zone으로 분류하여 장보고의 삶과 동북아 해상무역 활동, 해양개척 정신과 그 정신을 계승하여 21세기 신(新)해양시대 개척 의지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설전시실은 유물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기존의 단편적인 전시체계를 탈피하고, 모형과 영상·정보검색·관람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다.

## E 제1전시실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서

갈대를 상징하는 LED 조명을 해치면서 1200여년 전 장보고대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제1전시실은 완도 개요, 장좌리와 축척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장보고의 유적, 법화사지, 장도 청해진 유적, 문헌 속 장보고, 장보고대사의 인적, 지역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전시가 연출되어 있다.



## F 제2전시실

바닷길을 열다

제2전시실은 장보고와 해상ilk로드, 장보고선단의 무역활동을 주제로 중국과 일본에서의 활동이 전시 연출되어 있다. 미래비전 공간에서는 장보고의 해양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여는 완도"와 만나게 될 것이다.



# 張保臯 ChangPoGo

장보고(張保臯:~841)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중반을 살았던 인물로 완도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내고 당(唐)나라 강소성(江蘇省) 서주(徐州)에서 무령군중소장(武寧軍中少將)으로 활약하다 귀국하여 완도에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張保臯像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가 표준 영정 제 21호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명예교수 일람 이종삼 화백 작, 1979년]  
(규격 116.5cm x 91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문서기록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보다 중국과 일본의 문헌에 자세히 남아있다.  
장보고가 살았던 당시 당나라의 유명한 문장가인 두목(杜牧: 803-852)의 『반천문집(樊川文集)』 권6 「장보고·정년전(張保臯·鄭年傳)」에 자세히 실려 있고, 중국 정사(正史인 『신당서(新唐書)』)에 두목의 기록을 인용해 장보고의 내용을 실고 있다.  
일본에는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기(續日本紀)』, 승려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등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은 한결같이 그의 훌륭한 인품과 업적 등 좋은 평판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비롯하여 여러 문헌에 장보고가 소개되고 있다. 이렇듯 3개국 정사(正史)에 실린 인물은 우리 역사상 장보고 이외에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다.



## > 장보고 일대기

### 장보고의 어린시절 - 중국 당나라에서 활약 (무령군중소장 시절)

장보고는 청해(현 완도)에서 780년대 후반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궁복(弓福), 궁파(弓巴)라 기록되어 있다. 장보고는 청년기에 중국 당(唐)나라로 건너 갔다. 서주의 '무령군'이라는 군대에 들어가 전투에서 공을 세워 군중소장(軍中少將)의 직위까지 올랐다.



### 신라인들을 위한 활동 (적산법화원)

적산법화원을 설립하여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당에 거주하던 신라인들과 예물을 드리고 정보교환 등 신라인들의 사랑방 기능을 하였다.



### 청해진 설치와 해적소탕

장보고는 당시 해적에게 잡혀 노비로 팔리는 신라인의 침상에 큰 충격을 받고, 신라로 돌아가 이를 흥덕왕에게 알렸다. 신라 흥덕왕 3년(828)에 '청해에 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였다.'



### 동아시아 해상무역 기지, 청해진

해적들을 소탕한 이후 청해진 본영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이슬람세계와도 교역한 아시아 최초의 민간기업이자 세계적 무역망이 되었다. 장보고 선단과 청해진은 중국 남부지역까지 진출하여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이슬람 도자기, 유리제품 등을 신라와 일본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 신라의 왕위 쟁탈전과 장보고 암살

장보고는 신라 왕실의 왕위 계승 분쟁에 휘말려 중앙에서 보낸 자객 명장에 의해 피살됐다.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846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적인 장보고 청해진 대사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에 청해진을 건설하여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 청해진 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인이었다. 황해와 남해의 바닷길을 통해 중국(당)과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해양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양실크로드를 통해 동남아, 인도, 페르시아, 유럽과도 교역을 주도하였다. 당의 적산포(현 석도진)와 일본의 축자대진(현 하카타)에 무역 거점을 확보하고, 재당·재일본 신라인을 규합하여 당과 일본의 관원 및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 국제 상거래를 주도함으로써

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장보고 청해진 대사'는 우리나라 문명교류사에서도 획기적인 족적을 남겼다. 중국이 독점하던 청자생산 기술을 이전하여 해남과 강진 일대에 대규모 생산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 청자 생산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선종불교가 신라에 전파되었을 당시 최대 후원자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청자-선종-차'로 이어지는 당대 최고의 문명 3종 세트를 유입·안착시킴으로써 차 문화 확산에도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

바다는 육지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한반도 서남단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너른 바다를 품에 안은 완도. 지금 완도에서 1200여 년 전 장보고의 원대한 꿈을 되살리는 제2의 청해진이 건설되고 있다.

“**또 다른 항해. 21세기 신 항해시대를 여는 완도**”

### 적산법화원

820년대 초 장보고대사가 세운 사찰로 당시의 국제 무역항이었던 중국 산둥성 영성시 석도진 적산에 위치하고 있다. 장보고 선단의 활동중심지로 산둥성 일대에 살던 재당신라인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였으며 당나라로 유학 온 신라와 일본 승려들의 인식처 및 동북아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다.



### 양주

양자강 하류 양주는 대운하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고대부터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신라인을 비롯하여 페르시아·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항해하던 이슬람 상인들의 최종 기착지이기도 했다. 장보고 선단의 교역 활동으로 해상 실크로드는 이곳에서 한반도와 일본까지 연결되었다.

### 영파(영주)

영파는 고대부터 중국의 중요한 국제 중계 무역항으로 장보고 선단의 주요 교류 품목인 월주요청자(越州窯, 해무리굽 자기)가 이곳에서 생산되었는데 장보고대사에 의해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전수되어 훗날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색청자(翡色靑磁)'로 발전하게 된다.

### 장보고를 만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완도 '청해사(淸海祠)'

###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상(韓商), 거대한 운명을 살다간 장보고를 기억하라!

#### 완도 '청해사(淸海祠)'는

1.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무역, 정치, 문화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세계적인 '해양개척영웅 장보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완도의 명소이다.
2. 한민족 최초의 세계인이자 글로벌 해양영웅 "해상왕 장보고"를 기리는 사당



이제 당신의 발걸음이 이곳에 머무는 순간,  
**당신이 꿈꾸던 당신만의 버킷리스트 성공을 향한 '꿈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 당신의 꿈을 함께 나눌 청해사는 [장보고공원] 내에 있습니다.

장보고 상단

신라인  
디아스포라

**"장보고 대사의  
글로벌개척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릴테!**

### 장보고한상(張保臯韓商)이란?

장보고 청해진 대사(~891)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성공모델을 계승한 재외동포 경제인(한상) 가운데 모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한 경영인을 뜻한다.

장보고한상 어워드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은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글로벌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에 이바지 하는 등 재외동포들 가운데 공로가 가장 큰 한상을 '오늘의 장보고'로 예우해주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이다.



## 장보고 한상 張保臯韓商

장보고 한상은 신라인 디아스포라의 도전정신과 열정적인 문화의 정체성을 현재에도 이어가고자 하는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연결고리 역할.

韓商

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 청해진 (완도)

### 하카타

하카타(후쿠오카)에는 장보고 선단이 무역을 하였던 유적이 남아있다. 다자이후(大宰府)는 고대 한·중 교섭을 관장하던 국가 기관으로 일본에 방문한 신라 사신이나 무역상들이 일을 보던 곳이다. 다자이후에 속한 흥려관은 상인들을 접대, 숙박을 하던 영빈관이다.



일본 대宰府 정청터

### 적산선원

적산선원(赤山禪院)은 엔닌스님의 유언에 따라 제자들이 세운 선원으로 연륙사가 있는 비적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장보고 대사로 추정되는 신라대명상이 모셔져 있다.



### 고토바라이

적산선원은 고토바라이(금전정수는 5 나 10이 붙는 날에 행함)의 풍습이 된 '상업번성의 절'로서 알려져 있으며, 창건이래 1100여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래 ▶ 결제일을 5, 10, 15일 5의 배수로 정하는 관습으로 본래 매달 5일을 뜻하는 이쓰카바라이에서 차츰 5, 10, 15일 등을 포함하는 고토바라이 전통으로 이어졌다.

